【 2018.11.22(목) 강원일보 】

복지예산 사상 최대 659억원 증액

춘천시 내년 1조2,222억 편성… 올해보다 267억 늘어

복지 분야 일반회계 1/3 수준 3,709억으로 대폭 증가

【춘천】춘천시의 한 해 살림규모가 2년 연속 1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복지예산이 전체 3분의 1 이상인 3,709억원이 편성, 사상 최대인 659억8,000만원원이나 증가했다.

춘천시는 일반회계 9,738억원, 특별회계 2,484억원 등 총 1조2,222억원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편성해 21일 춘천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67억원 늘어났다. 시의 당초예산은 2014년 8,883억원, 2015년 9,070억원, 2016년 9,597억원, 2017년 9,731억원, 올해 1조1,955억원 등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공시지가 상승, 지방소득세 증가,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구 기능대학 부지 매각,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아동수당(139억원), 기초연금(796억원), 육아기본수당(75억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132억원), 노인일자리(123억원), 장애인활동지원(138억원) 등에서 크게 증액, 올해 대비 659억여원이 늘어난 3,70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37.32%다. 또 문화·관광·체육(678억원), 교통·도로(742억원), 교육(173억원), 환경(530억원), 지역개발(1,003억원), 농업(343억원)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현재 770억원인 채무액이 내년 말에는 637억원까지 감소, 재정건전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풍하 시 기획행정국장은 "시민이 주인인 행복한 춘천을 비전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민주권 활성화 등 11개 전략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hwy@